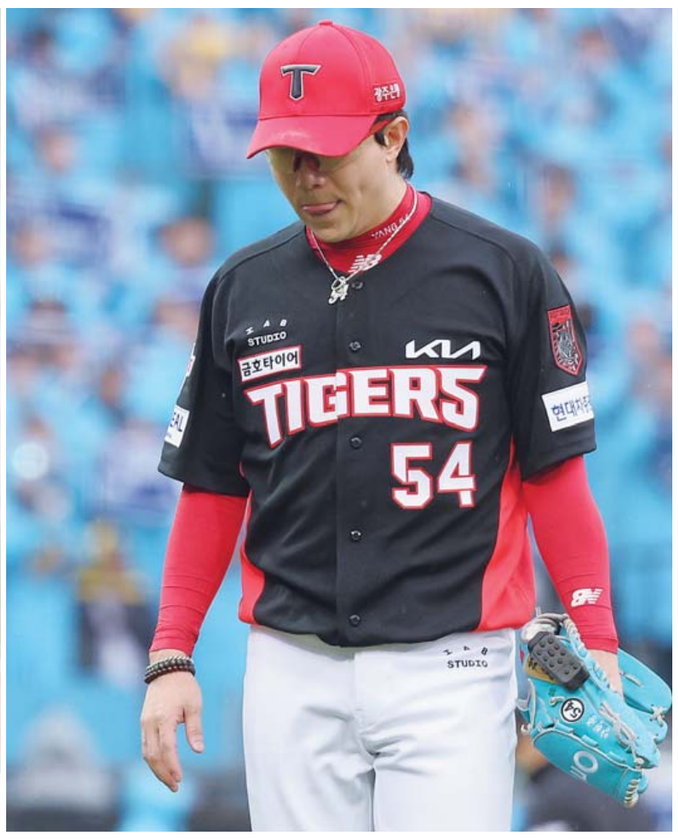
달구벌에서 멈춘 KIA의 가을 야구

삼성戰 PO 5차전 1대6…시리즈 전적 '2승 3패'

선발 올러 2이닝 4실점 '와르르'…양현종 카드도 허사
김도영 '무안타' 침묵 속 5안타 빈공, 믿었던 화력 잠잠





1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6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5차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KIA 올러와 양현종이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가을야구가 한국시리즈 문턱에서 멈췄다.

KIA는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1-6으로 패했다.

4차전 승리로 시리즈를 2승 2패로 맞췄지만, 마지막 승부에서 무릎을 꿇었다. 2년 만에 가을 무대에 나선 KIA는 포스트시즌을 3위로 마쳤다.

선발 투수의 초반 난조와 타선의 부진이 뼈아팠다.

KIA 타선은 2차전에 이어 이날도 삼성 선발 후라도를 공략하지 못했다. 안타는 5개에 그쳤고, 두 차례 병살타가 발목을 잡았다. 2회초와 7회초 모두 무사 1루에서 나왔다.

앞선 4경기에서 4할대 타율을 기록한 김도영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선발 올러도 제 몫을 하지 못했다.

2이닝 동안 6피안타 1볼넷 4실점으로 무너졌다. 2차전에 이어 대구에서 다시 패전투수가 됐다.

1회부터 흔들렸다.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은 뒤 희생번트와 볼넷으로 1사 1·2루 위기를 맞았다. 디아즈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최형우에게 적시타를 맞았다.

2회말에는 3점을 더 내줬다.

1사 후 안타와 2루타를 연달아 맞았다. 김지찬과 박승규에게 연속 적시타를 내주면서 점수는 0-4가 됐다.

KIA는 3회초 반격에 나섰다.

박재현이 1사 1루에서 적시 3루타를 터뜨려 한 점을 만회했다.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투수 양현종은 3회말부터 마운드에 올라 3⅔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했다. 5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티며 추격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타선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6회초 1사 1·2루 득점 기회에서도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6회말에 2점을 더 허용했다. 2사 2루에서 김지찬에게 1타점 3루타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좌익수 카스트로의 타구 판단이 아쉬움을 남겼다.

박승규에게도 적시타를 내주며 1-6으로 격차가 커졌다.

KIA는 마지막까지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8회초에는 중심타선이 삼자범퇴로 물러났다. 공 7개 만에 공격이 끝났다.

9회초에도 2사 2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결국 5점 차 패배로 가을 여정을 마쳤다.

/주홍철 기자

U12 어등초·성덕초, U15 신가중·용봉소녀단, U18 ONE FACT·스매시드림즈 '우승'

대한배구협회, V3 광주권역 디비전리그 '성료'

우수 엘리트선수 발굴 성과



2026 KVA V3 디비전리그 광주권역 대회 18세이하부 남녀 우승팀인 ONE FACT(남자)과 스매시드림즈(여자) 선수들이 시상식 후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생활체육 배구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 발굴을 위한 2026 KVA V3 디비전리그 광주권역 대회가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6개 부별 우승팀을 가렸다.

지난 5월30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10월31일까지 광주체고 체육관에서 진행된 광주권역 리그에는 초등부(U12)부터 고등부(U18)까지 남녀 6개 부문에 35개 팀이 참가해 92경기를 치렀다.

부문별 참가팀은 남자 U12 4개 팀, 여자 U12 3개 팀, 남자 U15 6개 팀, 여자 U15 7개 팀, 남자 U18 9개 팀, 여자 U18 6개 팀이다.

최종 결과 남자 U12는 어등초, 여자 U12는 성덕초가 정상에 올랐다. 남자 U15 신가중, 여자 U15 용봉소녀단, 남자 U18 ONE FACT, 여자 U18 스매시드림즈도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배구가 학교 운동부와 연계되는 성과도 거뒀다.

하남중 김태형은 배구부가 있는 광주전자공고를 진학 학교로 선택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성덕초 권리온도 배구 선수 육성에 힘쓰는 문흥중 진학을 결정했다.

지역 리그를 통해 배구를 접한 학생들이 학교 체육으로 진출하고 전문 선수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생활체육 대회를 넘어 지역 배구의 저변 확대와 유소년 선수 발굴·육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KVA V3 디비전리그는 대한배구협회가 대한체육회 및 시·도 배구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4개 권역에서 504개 팀이 참가해 6개 부문 84개 리그가 운영됐다.

광주권역 우승팀들은 오는 이달 중 열리는 전국 왕중왕전에 출전, 전국 최강에 도전한다.

/박희중 기자

"안세영 뛰나!"…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내일 여수서 개막

세계 최정상 스타들 총출동…8일까지 여수 진남체육관서 열전



세계 배드민턴 스타들이 여수에 집결해 세계 최고 자리를 놓고 화려한 셔틀콕 대결을 펼친다. 특히 나주 출신으로 '세계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팬들의 기대치가 뜨겁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된다.

1991년 첫 개최 이래 한국 배드민턴 발전의 산파 역할을 해온 코리아오픈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 500 등급의 권위있는 국제대회다.

이번 대회는 24개국 3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남·녀 단식, 남·녀 복식, 혼합복식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회 공식 대진표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열기와 기대감이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여자 단식에서는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출전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대진표상 안세영이 출전할 경우 4강에서 일본의 신예 스타 미야자키 도모카(세계 7위)와 맞붙고, 결승에서는 라이벌 야마구치 아카네(세계 2위)와 숙명의 '한·일 에이스 대결'을 펼치는 초호화 빅매치 구도가 완성됐다.

남자 복식에서도 디펜딩챔피언 서승재-김원호 조(세계 1위)를 비롯해 아론 치아-소위익 조(말레이시아·세계 4위) 등 세계 최정상급 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지역 출신 선수로는 지난 4월 열린 2026 아시아선수권에서 혼합복식 금메달을 차지하며 저력을 보여준 강진군 출신 김재현(혼합복식 세계 22위)이 파트너 장하정과 조를 이뤄 출전한다.

/박희중 기자

순천제일고 이승일, 대한항공 유니폼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해남 출신 홍준범도 대한항공行





이승일(왼쪽)과 홍준범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제일고 이승일이 프로배구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었다.

이승일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6-2027 한국배구연맹(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7순위로 지명됐다.

2008년 4월생인 이승일은 키 195.1㎝의 공격수다. 2024년 18세 이하(U18) 대표팀에서 활약했으며, 올해 한국중·고배구 2차 연맹전 익산 보석배대회와 제59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 우승 주역으로 맹활약했다.

특히 제59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 U18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해남 출신 홍준범(성균관대)도 3라운드 7순위로 대한항공에 낙점됐다.

고흥 녹동초-순천 팔마중-영생고를 거친 홍준범은 성균관대 배구부에서 2026시즌 주장을 맡으며 팀의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 준우승을 견인했었다.

특히 홍준범은 199㎝의 큰 장신과 배구선수에게는 절대 유리한 왼손잡이 선수로서, 아포짓 스파이커와 미들블로커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홍준범은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은 만큼 배구선수로서의 미래를 활짝 펴보고 싶다"며 "해남의 명예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SOOP 수퍼스 "아직은…"

박은서·서지혜 공백…흥국생명 상대 V리그 원정 개막전 0대3 완패



김세진 SOOP 감독이 1일 열린 흥국생명과의 원정 개막전에서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KOVO 제공〉

여자 프로배구 신생팀 SOOP 수퍼스가 V리그 원정 개막전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

SOOP은 1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20-25 20-25 22-25)으로 패했다.

부상으로 이탈한 박은서와 서지혜의 공백이 커보였다.

공격에서는 한국 무대에 첫 선을 보인 오드리아나가 15득점(공격성공률 41.67), 고의정이 10득점(공격성공률 35.71%)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 패배에 빛이 바랬다.

1세트 오드리아나가 공격의 활로를 뚫으며 상대를 거세게 압박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백어택과 퀵오픈을 성공시키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지만 잦은 범실에 발목이 잡히며 세트를 내줬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2세트까지 내준 SOOP은 3세트 상대 범실을 틈타 7-2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상대 정호영·표승주의 공격에 잇따라 실점하며 역전을 허용, 완패를 당했다.

SOOP은 이날 패패에도 불구하구 매 세트 접전을 펼치는 끈질긴 투혼을 발휘,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SOOP은 오는 5일 오후 7시 SOOP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과 홈개막전을 치른다.

/박희중 기자